

다산포럼



권순국  
세명대학교 명예교수  
전 고전문학회 회장

21세기 이 첨단정보화 시대에 최근 무속(巫俗)과 관련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공개 토론회에 나오고, 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무순(巫尊)도사(道士)라는 사람이 선거 캠프에서 요직을 맡고, 도사의 신기(神氣)에 의지해 일정을 짜는 등, 상식이나 합리적인 이성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제정일치'(祭政一致) 시대였던 고대국가에서는 무당(巫堂)이 곧 군장(君長)의 역할을 맡았다. 농경과 관련된 기상의 변화나 전쟁 등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누군가 올바르게 판단해 주어야 하고, 그 역할을 집단의 우두머리인 무당이 담당했다. 그리하여 이능화(李能化, 1869-1943)는 '조선무속고'에서 우리나라의 무속은 단군(檀君)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믿지 않는 유학(儒

혹세무민(惑世誣民)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學)이 정치 이념으로 정착하면서 무속은 이단시 되었다. 1701년(숙종 27) 인현왕후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을 때다. 장희빈이 취선당(就善堂) 서쪽에 신당(神堂)을 차려 놓고 왕후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숙종은 희빈 장씨를 자진하도록 하고, 그 일에 관련된 궁녀와 무녀도 모두 죽였다.

구한말에도 민비의 세도를 업고 국정을 농락한 정제 불명의 '진령군'(眞靈君)이란 무녀가 있었다. 무녀는 장호원까지 피신했던 민비에게 점을 쳐 50일 이내에 환궁할 것을 알려주었고, 거짓말처럼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 일로 이 무녀는 실세였던 민비의 절대적 신임을 얻어 유일무이하게 진령군이란 군호까지 내려졌다.

궁궐에서는 굿판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권세와 돈에 따라 매관매직도 유행했다. 허약한 세자(순종)의 병을 고친다고 굿판을 벌여 금강산 봉우리마다 쌀 한 섬과 돈 천냥, 무명 한 필씩 허비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국고가 탕진되었지만 민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령군의 신기만 믿었다.

다산(荊川)은 역저 '목민심서'에서 백성들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로 첫째는 도적, 둘째는 귀신불이(鬼魅), 셋째는 호랑이를 들었다. 귀신불이는 무속과 관련된 일로 귀신불이가 변괴를 일으키는 것은 무당이 유도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당을 베고 신당을 헐어 버려야 요사한 것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당들이 귀신을 방자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일을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나 귀신을 가탁(假託)하여 요사한 말로 민중들을 현혹시키는 자나 잡물(雜物)에 의탁하여 사특한 말로 백성들을 속이는 자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무속은 실상 오랜 세월 민중들의 아픔과 한을 달래기도 했다. 종교가 이 땅에 정착되기 이전부터 무속은 민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위로의 역할을 담당했다. 정화수를 떠 놓고 소원을 빌거나, 사주(四柱)를 보아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새해 운세를 점치고, 혼인할 상대가 어떤지 알아보고, 좋은 날을 택하여 일을 치렀다. 이렇듯 개인적인 일들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문제는 그것이 공적 영역으로 혹은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경우다. 지금이 제정일치 시대가 아닌 다음에야 국정이 주술에 의해 농단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고려말 신돈(辛旽)이나 구한말 진령군에 의해 국정이 농단된 경우를 보지 않았던가. 정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성에 의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다산은 무당이나 혹세무민(惑世誣民)한 자를 목민관(牧民官)이 처단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그 목민관을 뽑는 것이 국민이다. 그렇다면 맑은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적어도 혹세무민의 '굿판'이 정치를 좌우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청춘 특특



조서희  
광주대 문예창작과 2학년

밀레니얼 세대에 가장 큰 이슈는 '환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사이클'(recycle),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비건'(vegan) 등 환경을 위한 다양한 문화는 그들에게 환경 운동이자 동시에 나를 더 '힙하게' 만들어 주는 최신 유행이다. (영어 단어 hip에 ~하다를 붙인 '힙하다'는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를 들어 왔다. 많은 탄소 배출로 오존층이 뚫려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 여름이 더워지고 겨울이 추워져 인간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연쇄적인 내용은 교과서에 수도 없이 거론된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기후 변화를 교과서 속 얘기가 아닌 자신에게 닥친 위기로 받아들인다. SBS 시사교양 유튜브 채널인 '문명특급'에서는 전 멤버가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 그룹 '스테이씨'(STAYC)와 합

환경 운동도 이젠 '힙(hip)하게'

께 밀레니얼 세대의 환경 운동을 소개했다. 고등학생인 한 멤버는 비건 밥집 소개와 함께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대나무 칫솔과 텀블러를 보여 주며, 교실 대부분 학생이 환경을 생각하며 자신과 같이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환경 운동이란 특정 소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일상'이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에 환경 운동이 일상이 된 이유는 1020세대인 그들에게 따라하고 싶은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환경 보호는 '힙스터'(hipster: 힙한 사람)가 되기 위한 아이템이다. 구제 옷 쇼핑은 요즘 유행하는 90년대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며, 비건 레스토랑은 멋진 인태리어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SNS 채널에 올리기 좋은 '포토 스팟'(photo spot)으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그들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한정판 텀블러를 갖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곤 한다. 그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인증샷을 찍는다.

어쩌면 밀레니얼 세대의 행동이 단순히 트렌드를 쫓아가고 멋져 보이기 위한 가벼운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 보호는 왜 멋지면 안되는가. 환경 보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된다. 몇 톤의 석유와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는 새 옷이 아닌 중고 옷을 입을 때, 대량의 탄소 배출을 하는 축산업 대신 채식으로 이루어진 비건 음식을 먹을 때,

환경은 보호된다. 기왕이면 중고 옷을 입을 때 빈티지한 90년대 스타일을 입고, 비건 음식을 먹을 때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는다고 그 행동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 운동은 신성한 일이 아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그걸 가장 빨리 알아채 하나의 트렌드로 만들었음을 뿐이다. 밀레니얼 세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 자신'이다. 그들에게 왜 환경 보호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기성세대처럼 '자식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높은 자신이 살아갈 미래' 때문이라고 한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로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환경 운동을 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 중 하나다.

하지만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자신 외의 것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것도 그들이다. 그들은 기아를 불쌍히 여기고, 멸종되어 가는 동식물들을 불쌍히 여긴다. '멋짐'과 '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처럼 '자신'과 '타인' 둘 다 챙기는 것도 그들이다.

우리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처럼 '힙한' 환경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금 귀찮더라도 텀블러를 챙겨 다니고, 주방 세제를 다 썼다면 친환경 주방 비누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가끔은 비건 레스토랑에서 비건 음식을 먹고, 대형 백화점 대신 구제 옷을 파는 창고형 쇼핑몰을 가는 것도 환경 운동이자 동시에 좋은 데이트 코스가 될 것이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힙할수록' 더더욱 좋다. 환경 운동, 이젠 '힙하게' 해 보자.

기고



김용하  
전 광주시인협회 회장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우리는 올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있다. 다음 달 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에는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권력 기구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과, 지방분권의 행정을 담당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중차대한 정치 일정이 시작된다.

중앙과 지방의 정치 권력이 새로 개편되고, 시정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위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치가 회화화되고 과거의 행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안타깝다. 소위 여야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이 본인이나 가족들의 비리 부정으로 형사 소추를 당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선거 자체가 유례없는 온갖 추문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덜 추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문제는 이들 중 누가 당선된다 해도 그러한 오점을 가지고, 국민들의 존경과 공감을 얻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국민 의식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에 없다는 데 있다. 압도적인 공감과 지지 속에 정책을 펼치더라도 정책 사안에 따라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대립 구조 속에서 과연 정책적 통합과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에 처하게 되면, 결국은 법에 호소하고 사법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신뢰받고 엄정해야 할 사법부까지도 사법 농단이니 재판 아합이니 하여, 대법관들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고 전직 대법원장도 구속 수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기막힌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민주 법치 제도 하에서 모든 시시비비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려지고 있는데, 이제는 가장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판결에서 이기는 쪽은 몰라도, 적어도 지는 쪽이나 불리한 판결을 받은 쪽은 끝까지 불복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감형되거나,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복권된 정치 지도자들이 곧바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의 판결을 원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훗날 재심을 통해 뒤집어져서 국가가 배상하는 일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아말로 사회 존립의 최대 위기가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국민의 가치를 정립하는 획기적인 국민 의식 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맹목적인 추종을 하거나, 지역·계층·세대·남녀의 극한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면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투여한다 해도 언 발에 오줌누기식 미분책으로 끝나, 어떤 정책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고 국가 발전의 추동력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건전한 민주 공동체적 시민 의식의 상실, 주체적 가치관의 혼돈, 극도의 물질적 배급주의, 의무 없는 권리의 패배, 엽기적 인명 경시 등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총체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근본적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바르게 정립하는 운동의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간 존중, 화합과 상생 의식, 준법의 의식의 제고, 권리에 따른 책무의 이행 등이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민주 공동체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일대 혁명적 치유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모든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과 자기 책임감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몸이 체득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으로 정립해 가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추진할 사람만이 차기 대권이나 자치단체의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유례없는 '사과 대선' 내일은 또 뭐가 터지나

가수 안치환 씨가 며칠 전 발표한 노래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곡은 '예 그리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바벨 길 배래야지 대체, 정신없는 거니'라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거니'가 반복해서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이 노래가 김 씨를 저격한 노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름도 여러 번 바꾼 여인' 등의 가사 내용 역시 김 씨에 대한 의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 정치 활동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데 대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한다.

윤 후보는 한편 무궁화호를 임대한 '열정열차'에서 자기가 앉은 맞은편 좌석에 구두발을 올린 것에 대해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유감'이라

는 말로 사과를 대신했다. 윤 후보는 선대본부 공보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전했다.

어찌 됐든 이번 대선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과(謝過)가 넘쳐 난다는 점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여러 문제로 수차례 사과를 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도 말이 많다. 후보 부인들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는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에는 김 씨뿐만 아니라 이 후보까지도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연일 사과가 계속되다 보니 내일이면 또 무슨 사건이 불거질지 조마조마하다. 기왕에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 우리는 앞으로 누가 더 실수를 줄이느냐가 승패를 좌우할지도 모르는 이상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화순탄광 폐쇄 초읽기 정부 지원 늘려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화순광업소 등 전국의 탄광들이 이르면 3년 이내에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광부들은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노조는 잇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 감산 반대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정했다. 강원도 태백과 삼척 등 석탄공사 산하 전국 세 개 탄광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탄반 투표에서는 노조원 96.3%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들이 단체행동을 불사하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 계획에 따라 석탄공사의 향후 채탄량을 총 100만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화순광업소 등 세 곳의 3~4년 내 폐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폐광이 현실화되면 화순의 경우 공사 및 협력사 직원 314명과 그 가족 등 1000여 명의 생계가 막막해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조기 퇴직 직원들에 대한 전업 지원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이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화순광업소가 폐쇄되면 지역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비록 지난해 생산량은 7만 5200t으로 활황 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노동자 임금과 세금 및 자재비 등 200억 원 가량이 지역 경제에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화순광업소에서 광부들이 어두운 갱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캐낸 석탄은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화의 초석이 됐다. 비록 탄소 저감과 탈석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업 지원 등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대 대통령선거(3월9일)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남은 기간 그야말로 피 말리는 대결전에 돌입한다. 현재 대선 판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에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후보 단일화 성사 등 초대형 변수가 없다면 이번 대선은 3~5%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든 선거는 박빙의 접전일수록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불러일으킨다. 대선 '안티 선거'의 경우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관심보다는 걱정이 더 크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말해 주듯 양강 후보를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미래를 결정할 정책과 비전이 이슈가 되기보다는 네거티브 전쟁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양강 후보의 배우자들에 대한 각종 구설마저 겹치지 않아 코로나19 대확산에 지친 민심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이번 대선은 후보의 미래 비전을 선택하는 팬덤(fandom) 선거보다는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안티(anti)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네거티브 보팅(negative voting)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가.

이로 인해 이번 대선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 17대 대선의 63%에 근접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대선 이후 역시 격정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이라는 메가 이벤트로 국민적 역량이 결집되기도는 같듯이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3년째에 접어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혹독하고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기만 하다. 민생·경제·안

보·외교 등 현안들도 결코 녹록지 않다. 하지만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길을 만들어가듯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혹독한 겨울을 넘어 따뜻한 봄을 맞이 위해 적극적인 투표로 미래의 길을 내야 한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집단지성이 한껏 발휘되었으면 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